

2012 수시 최저학력 기준 높아진다

전국 대학들이 2012학년도 수시입학 전형에서 최저 학력기준을 높이고 있다. 일단 학생부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성적이 우수해 합격률을 하고 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 3예비 수험생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과목과 성적을 집중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종 당락 가르는 수능 최저 학력=최저 학력기준이란 수험생이 대학 입학 후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학력을 갖추었는지를 수학능력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수시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논술, 면접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한 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시켜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수능 성적이 기준이 되는 것은 각각적인 자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모든 전형에서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입시를 보면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졌다.